

## 저소득·일반 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관련 놀잇감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연구\*

The Effects of Toys Related to Literacy and Parent-child Relational Factors on  
Language Abilit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김명순(Myoung Soon Kim)<sup>1)</sup>

김길숙(Gil Sook Kim)<sup>2)</sup>

손승희(Seung Hee Son)<sup>3)</sup>

유정은(Jung Yeun Yoo)<sup>4)</sup>

이민주(Min Joo Lee)<sup>5)</sup>

이윤선(Yun Seon Lee)<sup>6)</sup>

조향린(Hang Rin Cho)<sup>7)</sup>

한찬희(Chan Hee Han)<sup>8)</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parent-child rel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young child's language abilit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To do so, the survey responses of 2,269 parents of 0- to 5- year-olds, taken from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Low-income families had significantly fewer toys related to literacy than middle and upper-income families. (2) There were fewer instances of parent-child play

\*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정책적 함의 공모전」 입상작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sup>1)</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up>2)</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up>3)</sup>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sup>4)</sup> 경인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강사

<sup>5)</sup> 경인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강사

<sup>6)</sup>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sup>7)</sup> 여주대학 보육학과 강사

<sup>8)</sup> 경인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Yun Seon Lee,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pica71@naver.com

interactions as well as lower scores of parenting styles and beliefs in low-income families than in middle and upper-income families. (3)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rms of language abilities from 0- to 1-year-old children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2-, 3-, 4- and 5-year-ol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language scores than children from middle- and upper-income families. (4) Toys related to literacy and parent-child relational facto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5) It can be further argued that toys related to literacy and parent-child relational factors clearly predict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Key Words** : 저소득 가정(low-income family), 영유아의 언어능력(children's language abilities), 언어 관련 놀잇감(toys related to literacy),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저소득 빈곤층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의 비중은 57.5%에서 지난해 49.9%로 7.6% 하락한 반면 저소득층은 2005년 18.1%에서 2008년 23.0%로 증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제가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변화로 등장하고 있다(구인회 · 박현선 · 정익중 · 김광혁, 2009). 이처럼 빈곤이 대를 물며 악순환되는 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환경과 특성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정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건강문제, 부적합한 주거 공간, 장애, 폭력,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정 해체, 부부간 불화 등 복합적 문제들을 나타내고(강명순, 2000; 김명순 · 김창복 · 이미화, 2002), 그로 인해 심한 가족 스트레스를 겪는다(Halpern, 2000). 저소득 가정의 열악한 환경은 아동이 어린 시기일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악영향을 주게 된다(Brooks-Gunn & Duncan, 1997). 빈곤으로 인한 아동기 삶의 차이로 인해

이후의 삶에서도 부적응과 지속적인 박탈을 경험하며 성인기 과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된다(이은혜 · 이정림 · 김명순 · 전해정, 2010; Goodman & Gregg, 2010).

빈곤의 악순환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 가정의 부모와 아동, 가족을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왔다.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에는 언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중류층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어휘력, 인쇄물 개념, 읽기 이해력 등 언어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김명순 · 박찬화, 2008; 신혜영 · 김명순, 2008; Berger, Paxson, & Waldfogel, 2009; Snow, Barnes, Chandler, Goodman, & Hamphill, 1991; Storch & Whitehurst, 2002; Walker, Greenwood, Hart, & Carta, 1994).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초기 언어중재는 이들의 낮은 언어발달을 촉진하고, 이후 학업성취와 적응 및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초기 가정

문해환경의 중요성과 문해 모델로서의 부모 역할 및 문해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김명순·이미화, 2004; Ponzetti & Dulin, 1997). 즉, 문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태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경험, 민감한 의사소통, 자녀에게 유용한 문해 자료 등은 유아의 문해 및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Holloway et al., 1990)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모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부모를 직접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문해 중재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가장 급속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모교육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책과 놀잇감을 제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영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모델로 보여주며, 부모도 함께 책읽기와 관련된 놀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김명순·김길숙·이명신, 2008; Gordon, 1975; Madden, O'Hara & Levenstein, 1984).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해 최근 We Start 중재프로그램에서 조기 언어중재가 실시되었다. ‘영아기 예방적 가정연계 놀이중재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2010)에서는 놀이감과 그림책을 제공하고 중재교사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주양육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활동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역할에 대한 모델링을 지원하였다(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0). 만 3-5세 ‘유아를 위한 예방적 언어중재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김명순, 2010)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8개월 이상 주 1회 소집단으로 그림책읽기 및 언어관련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저소득 가정 유아에

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문해환경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고자 하였다. We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영유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적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증가와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 등으로 인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외현화 행동이 줄어들었으며, 그로 인해 저소득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되었음이 나타났다(김선숙, 2008). 뿐만 아니라, We Start 영유아 중재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문해와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여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김명순, 2009a, 2009b; 김명순·박찬화, 2008; 김명순·채은화, 2008).

최근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문해 중재프로그램의 경우 언어와 환경이 다른 선진국의 예를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적절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전국규모 가정방문 조사로 진행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저소득 가정 영유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라 언어관련 놀잇감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라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은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상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 5>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은 영유아의 언어능력을 예언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자료 중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부모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연구는 0~5세 총 2,300명을 목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집하여 코딩된 2,26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2009) 연구에서 분류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이상이라는 기존의 유형 대신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가정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정’으로, 차상위 이상 가정을 ‘일반 가정’이라는 유형으로 재정의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척도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관련 문항들 중에서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유아의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을 1차로 23문항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의 값은 .763,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추출한 문항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ing)을 사용하여 2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여러 요인에 걸친 3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전체 문항은 총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에 2개의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한 후, 각 요인명을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이라고 명명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은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 많고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아이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덜 하고 자녀를 돌보는 데에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주양육자가 자녀와 신체놀이, 장난감 놀이, 노래 부르기, 상상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자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하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자녀와 함께 책을 보는 일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내적 합치도는 .71이었으며, 요

인별 내적 합치도는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 .53,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이 .74이었다.

### 2) 영유아의 언어능력

영유아의 언어능력은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부모 보고 방식의 언어발달 질문지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언어발달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가지 언어발달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하기, 사회적 의사소통, 듣기, 읽기와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하기, 듣기의 하위 범주로 이루어진 총 27개의 문항, 3세부터 5세까지는 읽기와 쓰기 관련 문항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총 36개의 문항을 부모가 ‘그렇다’와 ‘아니다’로 영유아의 수행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3) 언어관련 놀잇감

언어관련 놀잇감은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만 0-2세용과 만 3-5세용 설문지 문항 중 ‘수나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장난감(숫자카드, 글자카드, 숫자판, 글자판 등)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주양육자가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그렇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有)로 보았고,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무(無)로 분류하여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고  $\chi^2$  검증 실시 후 파이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는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와 영유아의 언어능력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과 영유아의 언어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의 차이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과 언어관련 놀잇감 유

<표 1>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N = 2,269)

언어관련 놀잇감	가정유형	저소득	일반	$\chi^2$	$\phi$
		n (%)	n (%)		
유		655(73.7%)	1261(91.4%)	128.92***	.24***
무		234(26.3%)	119( 8.6%)		
전체		889	1380	df = 1	

\*\*\*p < .001.

&lt;표 2&gt;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관련변인 차이

(N = 2,269)

부모-자녀관련 변인	가정유형	저소득(n = 889)	일반(n = 1380)	t
		M(SD)	M(SD)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30.84(3.60)	31.19(3.19)	2.40*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27.60(5.91)	30.53(4.79)	12.93***

\* $p < .05$ . \*\*\* $p < .001$ .

무의 관계를  $\chi^2$  검증한 결과(<표 1> 참조) 가정 유형에 따라 놀잇감 유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hi^2 = 128.92, p < .001$ )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과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파이계수( $\phi$ )를 산출한 결과,  $\phi = .24(p < .001)$ 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과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저소득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언어관련 놀잇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적었다.

## 2.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차이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중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은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t = 2.40, p < .05$ )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27.60점이었고 일반 가정의 경우 30.53점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 = 12.93, p < .001$ ). 즉, 저소득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 능력의 차이

영유아의 언어능력이 저소득과 일반 가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0세와 1세 영아의 언어능력에서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과 일반 가정의 2세( $t = 4.48, p < .001$ ), 3세( $t = 3.21, p < .01$ ), 4세( $t = 5.03, p < .001$ ), 5세( $t = 4.78, p < .001$ ) 영유아의 언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은 0, 1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 3, 4, 5세에서는 일반 가정 영유아가 저소득 가정 영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언어능력을 보였다.

&lt;표 3&gt; 저소득·일반 가정 유형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 (N = 2,269)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	가정형	저소득	일반	t
		M(SD)	M(SD)	
0세		10.67(7.66)	9.80(6.76)	-.97
1세		27.79(8.59)	27.54(8.34)	-.29
2세		24.27(8.90)	28.03(7.40)	4.48***
3세		22.55(8.39)	25.18(7.01)	3.21**
4세		16.30(6.30)	19.23(4.80)	5.03***
5세		17.00(5.51)	19.29(4.21)	4.78***

\*\* $p < .01$ . \*\*\* $p < .001$ .

<표 4> 언어관련 놀잇감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 상관관계 (N = 2,269)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	0세 (n = 314)	1세 (n = 424)	2세 (n = 380)	3세 (n = 364)	4세 (n = 374)	5세 (n = 413)
언어관련놀잇감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	.29	.32	.49***	.47***	.38***	.34***

\*\*\*p < .001.

4. 언어관련 놀잇감,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 관계

언어 관련 놀잇감의 유무와 영유아의 언어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0세와 1세 영아의 언어능력과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는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2세( $r = .49, p < .001$ ), 3세( $r = .47, p < .001$ ), 4세( $r = .38, p < .001$ ), 5세( $r = .34, p < .001$ )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는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관련 놀잇감이 가정에 있는 경우 2세 이상 영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총점은 0세( $r = .28, p < .001$ ), 1세( $r = .18, p < .001$ ), 2세( $r =$

$.36, p < .001$ ), 3세( $r = .32, p < .001$ ), 4세( $r = .32, p < .001$ ), 5세( $r = .31, p < .001$ )까지 모든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0세부터 5세까지 부모-자녀 관련변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하위 변인으로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과 0세와 1세 영아의 언어능력은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2세( $r = .30, p < .001$ ), 3세( $r = .23, p < .001$ ), 4세( $r = .25, p < .001$ ), 5세( $r = .19, p < .001$ ) 영유아의 언어능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세 이상의 영유아의 언어능력은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과의

<표 5>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 상관관계 (N = 2,269)

연령별 영유아의 언어능력	0세 (n = 314)	1세 (n = 424)	2세 (n = 380)	3세 (n = 364)	4세 (n = 374)	5세 (n = 413)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06	.10	.30***	.23***	.25	.19***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34***	.19***	.28***	.27***	.27***	.28***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 총점	.28***	.18***	.36***	.32***	.32***	.31***

\*\*\*p < .001.

관계는 0세( $r = .34, p < .001$ ), 1세( $r = .19, p < .001$ ), 2세( $r = .28, p < .001$ ), 3세( $r = .27, p < .001$ ), 4세( $r = .27, p < .001$ ), 5세( $r = .28, p < .001$ )까지 모든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영유아들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영유아 언어능력에 대한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영향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6> 참조), 0세 영아의 언어능력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beta = .34, 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어능력의 11%를 설명해 주었다. 1세 영아의 경우,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beta = .12, p < .05$ )와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beta = .14, p < .01$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에 의해 언어능력이 5% 설명되었다. 2세 영아의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는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beta = .20, p < .001$ ),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표 6> 0세~5세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N = 2,269)

연령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
0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29	.02	.11	13.25***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08	-.04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42	.34***		
1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2.58	.12*	.05	6.98***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07	.03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25	.14**		
2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4.98	.20***	.16	23.63***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57	.23***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21	.12*		
3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4.43	.18**	.13	18.42***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41	.18**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24	.17**		
4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2.86	.14**	.11	15.67***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31	.19***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16	.16**		
5세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1.55	.10 <sup>†</sup>	.10	14.98***
	부모양육태도 및 신념	.22	.14**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19	.21**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용'( $\beta = .12, p < .05$ ),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beta = .23, p < .001$ )이 모두 포함되었고, 이 변인들에 의해 언어능력이 16%가 설명되었다. 3세 유아의 언어능력은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beta = .18, p < .01$ ),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beta = .18, p < .01$ ),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beta = .17, p < .01$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에 의해 언어능력이 13% 설명되었다. 4세 유아의 경우,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 $\beta = .14, p < .01$ ),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beta = .19, p < .001$ ),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beta = .16, p < .01$ )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에 의해 언어능력이 11% 설명되었다. 5세 유아의 언어능력은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 $\beta = .14, p < .01$ ),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beta = .21, p < .001$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는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beta = .10, p < .051$ ), 이 변인들에 의해 언어능력이 10% 설명되었다.

즉, 0세 영아의 언어능력은 부모가 책보거나 다양한 놀이를 자주 해주수록 언어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1세 영아의 언어능력은 부모가 책읽거나 다양한 놀이를 자주 해주는 것 이외에 언어관련 놀잇감이 있는지 여부도 높은 언어능력을 예언할 수 있었다. 2세 이후의 영유아의 언어능력은 언어관련 놀잇감이 있고 부모가 자녀와 다양한 놀이를 자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에 있어서 만족하고 자녀 양육에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단, 5세 유아의 높은 언어능력은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과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 주요한 예언을 한 반면 언어와 관련된 놀잇감 유무는 예언의 경향성은 있었으나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두 유형의 가정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언어관련 놀잇감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 가정의 경우 저소득 가정에 비해 글자를 익힐 수 있는 글자 판이나 글자카드 등의 언어관련 놀잇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풍부한 문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신혜영·김명순, 2006; McCormick & Mason, 1986; Tomopoulos et al.,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물리적 문해 환경은 유아의 언어발달의 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정지연, 2004; Morrow, 1983), 저소득 가정의 부족한 문해 환경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자극하는 그림책, 언어관련 놀잇감을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 가정은 부모양육 태도 및 신념이 낮고 부모와 자녀의 놀이상호작용이 일반 가정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불안감(Conger & Elder, 1994), 부모 역할 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Crnic & Greenberg, 1987)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과 양육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Conger & Elder, 1994; Hannan & Luster, 1991). 본 연구에서도 저소득 가정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 등의 긍정

적인 감정을 적게 느끼는 반면, 자녀로 인한 피로감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 상실 등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저소득 가정 부모는 놀이나 책읽기와 같은 활동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일반 가정 부모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자녀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ee & Kim, 2006; Espy, Molfese, & DeLalla, 2001). 그러나 부모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고(Hannan & Luster, 1991),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의 책읽기 등 문해 활동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Gray, 1995). 본 연구에서도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부족은 결국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논의된다.

셋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영유아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5세 영유아의 경우 저소득 가정 영유아가 일반 가정 영유아에 비해 언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유아와 일반 유아의 여러 발달능력의 차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Ramey와 Ramey(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0, 1세를 제외한 2세 이상 영유아의 언어능력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가 적은 의사소통 행동(O'Connell & Farran, 1982)과 낮은 어휘력(Walker et al., 1994)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생애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발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영유아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발달 과정에서 점차 차이가 크게 벌어져 학령기 이후에는 학업성취와 사회적인 적응에서 저소

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 간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Ramey와 Ramey(1998)는 전형적인 정상 발달 궤도와 결핍된 발달 궤도 간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연령이 어리고 발달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영유아 시기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넷째,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5세 영유아에게는 놀잇감 유무와 언어 능력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세 영유아는 언어능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가정 내 문해 자료로서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글자나 수 카드와 같은 놀잇감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능력이 더 높았으며, 이는 가정 문해 환경과 유아의 언어발달 간 관계를 살핀 선행 연구(김수희, 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0세와 1세 영아에게는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와 언어능력 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어린 영아에게는 언어 발달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언어관련 놀잇감을 제공해주기보다 부모-자녀 간 적극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과 영유아의 언어능력 간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은 언어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 인지,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Belsky, 1984)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특히 하위 변인 중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은 모든 연령에서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 양육 태도 및 신념'은 2세 이상의 영유

아의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 양육태도 및 신념’이 0세와 1세 영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 본격적인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이므로,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민감성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보고식 질문지는 영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도구의 제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언어능력과 관계는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수희, 2003; Tomopoulos et al., 2006)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에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과 빈도뿐만 아니라 책읽기를 하는 시간과 빈도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의 언어를 자극할 수 있는 문해 활동이나 놀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상상놀이, 신체놀이, 바깥놀이, 게임놀이, 책읽기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자주, 또 많이 참여해 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종류 가정의 어머니들에 비해 책읽기나 놀이를 함께하는 빈도 및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혀진 저소득 가정의 부모에게는(Heath, 1983), ‘부모-자녀 간 놀이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부모-자녀 관계 관련변인들은 영유아의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는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었

으며, 1세는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더불어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도 영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는 ‘언어관련 놀잇감’과 ‘부모 양육 태도 및 신념’,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 모두가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가정 문해 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했던 여러 선행연구들(김길숙·김명순, 2010; 김수희, 2003; 이은혜·이정림·김명순·전혜정, 2010; Belsky, 1984; NICHD, 1999, 2005)과 맥을 같이 한다.

영유아의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에 대해서는 연령마다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0세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책보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언어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 1세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놀이 상호작용’ 이외에, ‘언어관련 놀잇감 여부’도 언어능력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드러났으나,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0세와 1세 영아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함께하는 책보기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 활동이 언어발달을 촉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과 ‘언어관련 놀잇감의 유무’ 및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 모두가 언어능력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세 이후의 영유아에게는 부모와의 놀이상호작용의 단순한 빈도와 시간의 양 이외에도, 놀이상호작용을 질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언어관련 놀잇감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도 영유아의 언어발달 촉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0, 1, 2, 3, 4, 5세에 공통적으로 언어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자녀 놀이상호 작용’ 변인이었다. 영유아기 부모의 상호작용과 언어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Hart & Risley, 1995; Tomasello & Farrar, 1986; Walker et al., 1994)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언어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맥락을 제공해준다고 밝혀왔다. 즉, 영유아는 어머니와 놀이를 하면서 사물과 행동에 관련된 언어를 듣고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맥락 안에서 언어는 그 상황과 구체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풍부하게 됨으로써 초기 언어발달을 격려한다(Ervin-Tripp, 1991; Tomasello & Farrar, 1986).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놀이 맥락의 중요성을 부모 및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들에게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린 연령의 영아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시사해 줄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성장해 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놀이행동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는 놀잇감의 제공, 놀이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신념 등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놀잇감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익혀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의 문해 환경과 부모의 언어능력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0세 영아부터 5세 유아까지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명순(2000).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 통합적인 접근 연구 : 특히 부스러기 선교회 아동복지교육센터 신나는 집 아동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인회 · 박현선 · 정익중 ·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 57-79.
- 김길숙 · 김명순(2010).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119-133.
- 김명순(2009a). We Start 보육 · 교육 영역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결과 및 전망. **We Start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 세계의 스타트 프로그램 : 빈곤아동을 위한 혁신적 접근**, 57-89.
- 김명순(2009b). 貧困家庭の乳兒のためのWE Start家庭訪問プログラムの適用と効果. 日本保育學會, 第62回 大會, 日本 : 千葉市, 千葉大學.
- 김명순(2010, 출간중). **유아를 위한 예방적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음세대.
- 김명순 · 김길숙 · 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과 권리**, 12(2), 161-187.
- 김명순 · 채은화(2008).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한 위스타트 기관방문 중재 프로그램

- 의 실시와 평가 : 영유아 중재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 자료집**, 603-613.
- 김명순 · 김창복 · 이미화(2002). 저소득 아동의 발달과 놀이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1), 87-104.
- 김명순 · 박찬화(2008).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를 위한 읽기중재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9(5), 301-319.
- 김명순 · 이미화(2004). **포괄적 보육서비스 : 아동교육**. 서울 : 다음세대.
- 김명순 · 황혜정 · 안효진(2010, 출간중). **영아기 예방적 가정연계 놀이중재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음세대.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희(2003).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가정 문해 환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 신혜영 · 김명순 (2006).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 199-212.
- 이은혜 · 이정림 · 김명순 · 전해정(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 정지연(2004). 아동의 가정문해환경과 인쇄물 개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Berger, L. M., Paxson, C., & Waldfogel, J. (2009). Income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978-989.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4-71.
- Conger, R., GE, X., Elder, G., Lorenz, F., & Simons, R.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rnic, K., & Greenberg, M. (1987). Mater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 Influences on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 In C. F. Z.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s* (pp. 25-40). Norwood, NJ : Ablex.
- Ervin-Tripp, S. M. (1991). Play in language development. In B. Scales, A. Almy, M. Almy, A. Nicolopoulou, & S. M. Ervin-Tripp, (Eds.), *Play and the social context of development in early care and education* (pp. 84-98). New York : Columbia Teachers College.
- Espy, K. A., Molfese, V. J., & DeLalla, L. F. (2001). Eff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 Growth curve modeling of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47, 42-73.
- Goodman, A. & Gregg, P. (2010). *Poore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 How important are attitudes and behaviour?* Joseph Rowntree Foundation Report.
- Gordon, I. J. (1975). *The Florida Parent Education Early Intervention Projects : A Logitudinal Look*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 No. ED 100492).
- Gray, L. S. (1995). Taking from books by asking ques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0, 23-28.
- Halpern, R. (2000).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for low-income children and families.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361-386).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nan, K., & Luster, T. (1991). Influence of parent, child, and contextual factors on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1), 17-30.
- Hart, B., & Risley, T. R. (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 Persisting differences

-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96-1105.
- Heath, S. B. (1983). *Ways With Words :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 Holloway, S. D., Fuller, B., Hess, F. D., Azuma, H., Kashiwagi, K., & Gorman, K. (1990). The family's influence on achieve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4(3), 196-208.
- Lee, K. Y., & Kim, M. S. (2006). Mother-child interactions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Journal of ARAHE*, 13(1), 39-49.
- Madden, J., O'Hara, J., & Levenstein, P. (1984). Home Again : Effects of the Mother-Child Home Program on Mother and Child. *Child Development*, 55(2), 636-647.
- McCormick, C., & Mason, J. M. (1986). Intervention procedures for increasing preschool children's interest in and knowledge about reading. In W. H. Teale &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 Writing and reading* (pp. 90-115). Norwood, NJ : Ablex.
- Morrow, L. M. (1983). Home and school correlates of early interest in literatur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4), 221-230.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399-1413.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Duration and developmental timing of poverty and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from birth through third grade. *Child Development*, 76(4), 795-810.
- O'Connell, J. C., & Farran, D. C. (1982). Effects of day care experience on the use of intentional communicative behaviors in a sample of socioeconomically depress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2-29.
- Ramey, C. T., & Ramey, S. L. (1998). Early intervention and early experien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09-120.
- Snow, C. E., Barnes, W. S., Chandler, J., Goodman, I. F., & Hemphill, L. (1991). *Unfulfilled expectations : Home and school influences on literacy*. Cambridge, MA : Harvard.
- Storch, S. A., & Whitehurst, G. J. (2002). Oral language and code-related precursors to reading :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ructur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934-947.
- Tomasello, M., & Farrar,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3.
- Tomopoulos, S., Dreyer, B., Tamis-LeMonda, C., Flynn, V., Rovira, I., Tineo, W., & Mendelsohn, A. L. (2006). Books, toy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evelopment in young Latino children. *Ambulatory Pediatrics*, 6(2), 72-78.
- Walker, D., Greenwood, C., Hart, B., &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 606-621.

2010년 4월 29일 투고, 2010년 6월 28일 수정  
2010년 7월 8일 채택